

클럽 아레나

클럽 아레나

들어가며	7
01 공간 구조	13
— 파사드	15
— 실내 공간	20
— 조명	27
— 테이بل	32
02 도시적 맥락	39
— 강남 클럽의 연인	41
— 주변 프로그램	47
— 강남의 다른 클럽들	51
— 클럽과 도시	58
03 시스템	65
— 테이블 예약	67
— 입장 정책	72
— 남녀 관계	78
— 운영 시간	84
04 문화	91
— 음악	93
— 춤	101
— 패션	107
— 술	114

05 사람들	121
- 테이블 게스트	123
- 스탠딩 게스트	130
- 돈을 뿌리는 사람	135
- 직원들	141

06 이야기	149
- 멘트	151

- 오는 이유들	155
- 애프터	161
- 귀갓길	165
- 나가며	171

들어가며

클럽을 주제로 책을 쓴다고 하니 모두가 웃었다.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분명 클럽은 진지한 논의 대상이기보다는 잠깐 즐기고 마는 장소로 여겨져 왔다. 물론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일탈 문화란 일상생활 반대편에 있어야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클럽에 대한 선입견 탓도 크다. 클럽은 범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밤 문화의 대표 주자로서 규범상 잘못된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은폐했고 말해선 안 되는 것처럼 터부시했다. 그러나 마냥 모른 척하기에 오늘날 클럽에 모인 사람들은 적지 않다. 주말 새벽이면 도로 몇 개 블록을 메울 만큼 사람들이 클럽 안팎으로 가득하고, 그곳에서 소비되는 자본 또한 웬만한 규모를 넘어선다. 단순히 양적인 이유만으로도 무시할 수 없는 현상인 셈이다.

따라서 누군가는 이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문화란 좋다 나쁘다 같은 가치 판단에 앞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만드는 행동 양식을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설령 변질된 욕망이든 일시적인 일탈이든 가치 판단 못지않게 사실 판단은 중요하다.

클럽에 응집된 문화 요소도 다양하다.

클래식이라고 일컫는 많은 예술 문화가 파티에서 비롯되었듯,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파티 장소인 클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를 담고 있다. 지금 유행하는 음악과 패션 같은 여러 문화 요소가 클럽을 채운다. 타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많은 문화적 부산물을 남기는 것이다. 모쪼록 클럽은 외모와 재화라는 세속적 가치가 극대화된 장소로서 지금 시대를 다양하게 증명한다.

나아가 일련의 문화를 통해 현재 한국의 사회상을 비취 볼 수도 있다. 사회 규범 아래 평소 숨겨야 했던 욕망이 클럽에서만큼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진실은 대개 사람들이 숨기고 감추는 것에 자리하기 마련이다. 클럽에서는 천민자본주의, 외모 지상주의, 여성 혐오 등 모두가 부정하지만, 사회에 만연한 태도가 전면적으로 나타난다. 일상에선 아닌 척, 모른 척하지만, 결국 속 안에 들끓는 욕망이 어떤 종류인지 엿보인다.

많은 클럽 가운데 구태여 ‘아레나’를 지목한 이유는 이런 맥락에서다. 아레나는 강남의 에프터 클럽으로서 클럽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장 극단적으로 지니는 곳인 만큼, 그동안 미처 다뤄지지 못했던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최대한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못생겼기 때문에 입장을 불허하고, 테이블

가격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고, 인사도 하기 전에 스킨십을 하며, 허공에 지폐 더미를 뿌리고 외모를 폄평하는 등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되레 당연하게 행해지는 문화를 기록하고, 사회와 연관 지어 이 양상들이 우리 일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

주말 새벽 클럽에서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불과 몇 시간 뒤에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신정적인 소재인 만큼 최대한 이를 진정해 서술하고자 노력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작금의 현상이 소재인 만큼 생동감 있는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인터넷에 떠도는 음담패설처럼 소모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과한 욕심일 수는 있으나 어쨌거나 이 책의 목표는 아레나를 통해 오늘날 클럽 문화를 기록하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행동 양식과 문화 요소를 통하여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겨진 면모를 이야기해 보는 것이다.

클럽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적당한 설명이 되고, 클럽을 자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길 바라며 책 내용을 구성했다.

우선 1장에서는 클럽의 실체감을 전달하기 위해 아레나의 공간 구조를 살펴본다. 새벽 시간 지하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클럽은 금세 잊히기 일쑤인데, ‘아레나’라는 공간의 물리적 요소를 설명함으로써 다루는 대상을 명시하고자 했다.

2장에서는 아레나가 임지한 강남구 논현동 인근의 도시적 맥락을 살피고 다른 클럽과 비교한다. 많고 많은 클럽 가운데 ‘아레나’를 선정한 까닭과 책의 목적 및 근거를 설명하는 장이 될 것이다.

1장과 2장이 각각 미시·거시적으로 아레나의 물리적 실체를 살피는 내용이라면, 3장은 아레나가 작동하는 시스템을 정리한다. 강남 클럽 대부분이 유사한 시스템을 따르고 있지만, 테이블을 경매 방식으로 입찰하는 비딩(bidding)이나 입장 정책, 때늦은 영업시간 등 많은 시스템이 아레나에서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아레나에서 관찰한 구체적 사례를 살핀다. 4장은 아레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여러 문화 요소를 다룬다. 타인에게 잘 보이지 않자 하는 욕망에 기반하여 형성된 현대인의 문화 형태를 전반적으로 서술한다.

5장은 아레나에 존재하는 여러 사람을 유형화해 설명한다. 기본적으로는 직원이나 손님 같은 실질적인 범주로 나누었지만,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생겨나는 인격적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6장은 아레나를 매개로 일어나는 여러

이야기를 다룬다. 아레나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간의 에피소드는 사회적인 선입견과 관계하며 더욱 폭넓은 내용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클럽 아레나

2019년 4월 4일 1판 1쇄 발행

지은이 최나욱

펴낸이 박래선

펴낸곳 에이도스출판사

출판신고 제2018-000083호

주소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 33 회산빌딩 402호

전화 02-355-3191

팩스 02-989-3191

이메일 idospub.co@gmail.com

페이스북 [facebook.com/idospublishing](https://www.facebook.com/idospublishing)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dos_book](https://www.instagram.com/idos_book)

블로그 <https://idospub.blog.me>

디자인 신건모

ISBN 979-11-85415-28-4 03300

잘못 만들어진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종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9009076)